## 시집 「아름다운 새벽」의 발문

「개렴」(槪念)으로 노래를 부르려는 이가 잇습니다. 더욱이 민중예술을 주창하는 이 사회형명덕 색채를 가진 이 중에 그런 이가 잇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는 십샹팔구가 「개렴」의 노래가 됩니다. 이 책에 모흔 노래는 「개렴」에 의하야 쓴 것이 아닙니다. 또 「개렴」을 지으려고 쓴 것도 아닙니다. 이는 다만 때를 따라 니는 마음의 파동의 긔록입니다. 그럼으로 거긔는 각색가지 사샹과 정서가 석겨잇습니다. 전후 모순되리만치 색채가 잡연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색채가 다 「나」라는 것의 일부의 나타남이외다. 그 복잡이 「나」라는 개셩에 통일될 줄 압니다.

「자긔에게 충실하라」 이것이 나의 예술 밋 생활의 표어입니다. 그 「자긔」라는 것은 결코 한가지 「개렴」이나 「사샹」이나 「주의」가 아니외다. 그 모든 것을 포함한 통일테입니다. 그 「자긔」를 충실히 노래한 것이 이 노래들 입니다.

그러나 나는 여긔 두가지 자백할 것이 잇습니다. 첫재는 내가 의식뎍으로 「데싸단티즘」을 피한 것이외다. 「나」와「사회」는 서로 떠나지 못할 것이외다. 그럼으로 엇던한 적은 「나」의 행동이던지 「사회」에 영향을 주지 아늠이 업슬 것이외다. 나는 우리 현재 사회에 「데싸단」뎍, 병뎍, 문학을 주기를 실혀합니다. 그럼으로 나는 「데싸단」뎍 경향을 가진 작가를 조하하지 아느며 자신도 그런 경향을 피하기로 주의하엿습니다. 오직 건강한 생명이 가득한, 온갓 초목이 자라나는 속에 잇는 조용하고도 큰 힘가튼 예술을 나는 구하엿습니다.

둘재로 자백할 것은 이삼년래로 나의 시를 민중에게로 더 각가히 하기 위하야 의식뎍으로 로력한 것이외다. 나는 우에도 말한 바와 가치 「개념」으로 된 「민중시」에는 호감을 가지지 안엇스나 시가가 본질뎍으로 민중에 각가울 수 잇는 것이라 생각하며, 그러케 되려면 반드시 거긔 담긴 사샹과 정서와 말이 민중의 마음과 가치 울리는 것이라야 될 줄 압니다. 그럼으로 이 책중에 「나무색이」, 「고향생각」등에 모흔 노래는 이런 의미로 보아 민중에 각가히 가려는 시험이외다. —朱耀翰, 「아름다운 새벽」(서울: 朝鮮文壇社, 1924), pp. 167～169.